

장내바이러스 (무균성뇌막염) 유행에측조사

역학조사과

장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무균성뇌막염은 다수에게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내바이러스의 유행을 조기에 탐지하고 유행 양상의 역학적인 접근 및 병원체 검색을 통해 바이러스를 확인하여, 유행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로 국민건강 및 공중위생 차원에서 감염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조사기간 : 2001년 1월 ~ 2001년 12월
- 조사 지정의료기관
 - ▷ 병원 11개소 : 양영란내과의원, 성분도병원, 백병원, 메리놀병원, 침례병원, 일신기독병원, 한서병원, 자모병원, 동아대학교병원, 부산대학교병원, 장민혁이비인후과의원.
- 조사방법 : 장내바이러스(무균성뇌막염) 분리시험
 - 지정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증세가 발열, 두통, 오심, 구토로서 장내 바이러스 감염 의증 환자의 분변, 뇌척수액, 인후가검물을 채취하여 장내바이러스를 분리 및 동정

□ 조사결과

- 2000년 부산시내 종합·개인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총 371건의 무균성 뇌막염 환자의 검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위한 원인바이러스 검출결과 16명이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음(표1).
- 월별 바이러스 분리결과는 Cocksackievirus B5가 5월에 4건, Enteroviruses는 5월에 3건, 6월에 5건, 8월에 4건이 분리되었으며 무균성 뇌막염이 호발하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분리되었음(표1).

- 바이러스 분리 연령별로는 대부분이 10세 이하였고 10대가 2명, 20대가 2사례로 나타났으며, 남녀 성별 분리비율은 1:1이었음(표2).
- 환자의 검체 종류는 대변에서 9건이 분리되었고 뇌척수액에서 2건, 인후 가검물에서 5건이 분리되었음(표2).

□ 예방대책

- 특이한 백신 개발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.
- 외출 후 양치질을 하고 손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을 것.
- 오염된 식기, 물, 식품 등으로 감염되므로 식수는 끓여서 먹고 소독을 잘 하여야 함.
- 수영장 소독을 철저.
- 집단모임을 피하고, 환자와의 접촉을 피함.
- 여름 감기의 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므로 감기 유행 시 주의를 요함.

□ 조치사항

- 무균성뇌막염 양성 결과는 국립보건원, 시청 보건위생과에 보고.
- 최근의 식수원에서도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바 더 많은 분리를 계속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 외에도 더 다양한 양상의 장내바이러스 분리가 가능할 것임.
- 무균성 뇌수막염 발생 또는 유행이 심할 경우 언론보도.
- 역학조사를 계속하여 집단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- 전염경로의 차단이 어려우므로 유행예측을 통한 예방의 노력이 필요함.

표1. 월별 장내바이러스 분리

| 월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가검물수(명) | 72 | 29 | 32 | 14 | 35 | 32 | 23 | 6 | 10 | 6 | 5 | 28 | 292 |
| Coxsackievirus B 5 | · | · | · | · | 4 | · | · | · | · | · | · | · | 4 |
| Enteroviruses | · | · | · | · | 3 | 5 | · | 4 | · | · | · | · | 12 |

표2. 성별 · 연령별 발생양상 및 검체 종류

| 성 별 | | 연 령 | | | 검 체 | | |
|-----|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|
| 남 | 여 | 10세 이하 | 10대 | 20대 | 대변 | 뇌척수액 | 인후가검물 |
| 8명 | 8명 | 13명 | 2명 | 1명 | 9명 | 2명 | 5명 |